

물가상승으로 변한 학생 생활

“정 많고 푸짐했던 안암이 그림습니다”

3년간 인근 식당 평균 19.3%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쩔 수 없어”
지출 줄이기 위해 소비 형태 변해

지난달 30일 오후 1시, 정경대 후문에서 박 진혁(공과대 건축사회17) 씨는 점심을 먹기 위해 평소 즐겨 찾는 ‘고른햇살’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당은 사람들로 붐볐다. 자리에 앉아 참치김밥과 치즈라볶이, 토종순대를 주문했다. 올해 초 고른햇살이 자리를 옮기며 참치김밥은 3500원으로 500원 올랐다. 지난달 9일에는 4000원으로 한번 더 인상됐다. 치즈라볶이와 토종순대 또한 가격이 1000원 상승했다. 지난 3년간 고른햇살 메뉴는 대부분 1000원 정도 인상됐다.

박 씨는 정후 근처에서 자취하며 주로 가성비 좋은 식당을 가곤 했다. ‘고른햇살’, ‘비야’, ‘동우설렁탕’, ‘서울쌈면’ 등이다. 그가 좋아하는 “정 많고 푸짐한 안암”에 어울리는 곳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직접 밥을 해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생활비는 그대로 인데 식당 메뉴들은 다 올랐기 때문이다. 직접 요리하는 것도 원재료 가격이 만만치 않게 상승해 부담은 여전하다. 박 씨는 “가끔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식당에 가는 것과 가격이 비슷하다 느껴 난감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8.3%, 전쟁 이후 9.6% 올라
본교 서울캠퍼스 주변인 △참살이길 △개운사길 △정문·고대사거리·종암동 법대 후문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3년 이상 운영 중인 식당(술집, 카페 제외) 53곳의 주요 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조사했다. 평균 가격 상승률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8월과 2021년 8월의 주요 메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년 사이에 인근 식당 가격 상승률은 평균 8.3%로 나타났다. 2021년 8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 8월을 비교하면 상승률은 평균 9.6%였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 사이 식당 메뉴 가격은 평균 19.3%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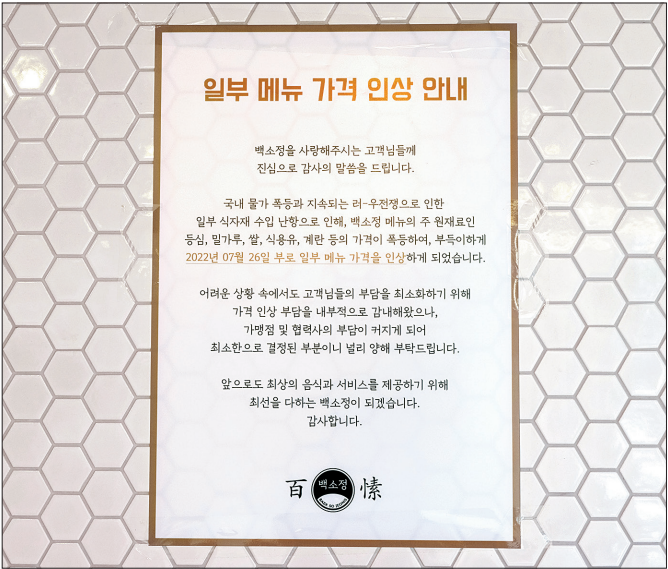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메뉴 가격이 오

른 주요 식당은 고른햇살, 비야, 동우설렁탕 등이다. 모두 1000원씩 가격을 인상했다. 고른햇살 측은 “코로나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다”며 “2년 동안 오른 물가에 자연스레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가격이 오른 식당은 ‘연어이야기’, ‘토담’, ‘유자유’ 등이다. 정문 근처 식당 연어이야기의 ‘숙성연어회 소’는 전쟁 전 2만3000원이었다. 지난 7월 해당 메뉴는 3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유자유는 지난달 주요 메뉴를 1500원 인상했다. 유자유 사장 임정택(남·57) 씨는 식자재비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당분간 더 인상할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대표메뉴 가격이 1000원씩 오른 토담 사장 서순희(여·60) 씨는 원자재 상승뿐 아니라 인건비도 부담이라 밝혔다. 서 씨는 “저희 부부를 포함해 3명이 일하고 있다”며 “아주머니 월급을 주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돈은 한 명 월급도 안 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에 적응하는 학생들
김다은(미디어18)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평소 백주년기념관에서 공부한다. 김 씨는 개운사길 쪽에서 자취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는 점심시간이 될 때쯤 식사를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김 씨는 새내기 시절, 주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안암 상권의 물가상승에 대해 “대학가 식당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며 “최근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식당에 직접 가기보다는 배달을 시켜 먹거나 요리해 먹는 편이다. 배달 음식도 최근 가격이 올라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식자재를 직접 사는 게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 부담이라 밀키트를 산다. 그는 “밀키트 가격이 1,2학년 시절 인근 식당 가격과 비슷하다”고 평했다. 현재 김 씨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서울캠 주변 식당 사장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고른햇살, 미스터국밥, 알레스카에 서 온 연어가 맛있는 집, 백소정.

있다. 또한 제휴사 쿠폰을 사용하거나 여러 혜택을 확인한 후 카드를 옮겨가며 생활비를 절감한다.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현옥(사범대 수교19) 씨는 스스로 하루 1만5000원 식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 씨는 “안암 근처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가격이 꽤 비싸다”며 “아르바이트비는 안 오르는데 가격 인상이 부담돼 쓰는 돈을 줄였다”고 말했다.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김민진(미디어21) 씨는 최근 편의점이나 학생식당, 한솔 같은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프랜

차이즈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가격이 상승한 식당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 김 씨는 “굳이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다 편의점에 가 돈을 아낀다”며 “한 끼를 든든하게 먹고 다음 끼니를 챙기지 않는 때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영화관람 등 여가 생활을 줄이고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주변 식당의 전반적인 가격 인상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식당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다. 박진

혁 씨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기에 이해한다”며 “새내기 때 느낀 ‘정 많고 푸짐한 안암’과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다은 씨는 “가성비 좋은 대학가 식당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토담 사장 서순희 씨는 “개강 직전 가격을 인상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가격 인상을 학생들이 답답히 이해하고 받아들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 | 오찬영 기자 luncheon@
사진 | 강동우·문원준·김태윤 기자 press@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한국 법학교육의 최초이며 최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체입학설명회
2022.9.14(수) 19시~

자체입학설명회 신청접수(선착순)
2022.9.7(수) 오후 1시 홈페이지 신청

원서접수
2022.9.26(월) 9시~ **9.30(금)** 18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모집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나’군	일반전형	111명 이내
	특별전형	9명 이상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kulawschool.korea.ac.kr>) 참고



1905

이 나라 최초 근대 법학 고등교육

1905년 4월 3일 보성전문 법률과가 설립되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근대 법학교육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한국 법학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1907

이 나라 최초 법률·경제 학술지 『法政學界』 발간

보성전문 교수와 제1회 졸업생은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경제 학술지 『法政學界』 발간했습니다. 보성전문은 교육은 물론 학문적 비전도 뚜렷했습니다.



1919

3·1 만세운동의 핵심 세력, 보성전문

보성전문 경영자 손병희는 민족대표자였고, 법과 재학생 강기덕은 학생대표, 독립선언서 인쇄는 보성전문 부속출판사 보성사(普成社)였습니다. 1920년 3·1운동 주모자에 대한 재판에서 보성전문 제1회 졸업생 허헌은 역사적인 변론을 합니다.



2009

로스쿨과 함께가는 높고(高) 우아한(麗) 학문공동체

고려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감각을 구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는 단순히 크고 많은 것 너머의 보다 큰 가치를 추구하는 (Go beyond Greatness) 학문공동체입니다.



1960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 高大法學

고려대학교는 1960년 4월 18일 반민주에 항거하는 시위를 통해 거국적인 4·19 혁명을 촉발시켰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법치주의의 확산을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1948

고려대학교, 법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하다

고려대학교 법학교수 유진오는 대한민국 헌법을, 보성전문 재단이사 및 촉탁강사를 역임한 김병로는 민법·형법 등 기본 법률을 기초하였습니다.

